

문 9: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답 9: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열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두 매우 좋았다.

성경적 근거: 히브리서 11:3; 창세기 1:1,31; 시편 33:9; 요한계시록 4:11

질문 1: 창조는 무엇인가?

질문 2: 창조는 누가 하신것인가?

질문 3: 창조의 기간은 얼마인가?

질문 4: 창조는 어떤 상태에서 되었는가?

질문 5: 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었는가?

질문 6: 무엇을 창조하셨나?

질문 7: 창조된 것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나?

창세기 1 장을 상세하게 읽어 보라. 그리고 다음 질문에 답을 하라:

질문 8: “태초”란 무엇을 의미하나?

질문 9: 태초가 있음은 또한 무엇이 있음을 말하고 있나?

질문 10: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때에 누가 그와 함께 하셨나? (창 1:2; 요 1:1-3)

질문 11: “나누게”라는 단어가 몇번이나 사용되었으며 무엇과 무엇을 나누는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질문 12: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였나? 저녁인가 아침인가?

질문 13: 저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질문 14: 아침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질문 15: 제일 나중에 창조된 것이 무엇인가?

질문 16: 창조가 끝난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 (창 2:1-2)

질문 17: 창조와 발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 설명:

창조는 성경적이며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창조는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논의 할 수 없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창조론”라는 이름하에 성경의 가르침을 외곡시켰으며 계속 인간의 생각대로 창조를 논하고 있다. 성경에 의하면 창조에 대해서는 사실 논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말라 그리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먹어야 되느냐에는 논의 할 것이 없음에도 뱀은 그 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창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죄성은 논쟁의 대상이 될수없는 창조를 논쟁의 대상으로 만든것이다. 이것은 뱀이 사람을 쫓 것 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죄악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성경적, 역사적 창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춰야 한다:

1.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여호와 외에는 창조주가 없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일수 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며 진정한 신이되시므로 여호와 만이 창조주가 되신다.
2. 창조의 기간은 6 일이다. 성경은 여기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여섯번을 되풀이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 칠일에 안식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첫날부터 칠일까지 하루의 기간이 차이가 남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고있다. 그러므로 하루의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쓸데 없는 논쟁인 것이다. 사람의 상상력은 매우 뛰어나기도 하지만 매우 위험하기도 한것이다. 권위가 없는 어떤 주장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무오함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3. 창조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물체라도 창조의 근거가 될수없다. 이 부분은 과학이 건드릴수도 소화시킬수도 없는 부분이다. 과학이란 자체가 “무”에 대해 논할수 없는 것이다. 과학은 오로지 “유”에 국한된 것이다. 그래서 과학은 영의 세계를 건드릴수 없는 것이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솜씨를 말하는것이다.
4. 창조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서 이뤄진 것이다. 창조는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고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질서있게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이뤄진 것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창조의 내용외에 어떤 다른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전체가 무너진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3 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될 것이다.
5. 모든 것이 다 창조 되었다. 우주만물의 모든 것은 그 존재가 창조에 의한 것이다. 예외는 하나도 없다.
6.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그리고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족할만한 것이라는 것이다.

문답 8 에서 6 번에 대해 잠시 다뤘지만 조금더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모든 것이 좋았고 선하게 창조 되었다면 죄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이다.

돈 자체는 죄악된것이 아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것은 죄악이 된다.

칼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칼로 사람을 죽이면 죄악이 된다.

사람의 말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을 해치면 죄악이 된다.

인터넷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사람이 잘못 사용하면 죄악이 된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살아갈때에 일어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죄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18-23)

이 여섯 요소중에 하나만 빼어도 창조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것은 성경을 깨닫는데 꼭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됨이 없으시다. (이사야 55:11; 신명기 29:29; 마태복음 5:18, 경교: 요한계시록 22:18-19)

성경의 첫 말은 사람의 심금을 울릴만 한 놀라운 말이다. “태초에...” 무슨일이 있었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첫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이다. 사실을 알게하고 선포한 것이다. 창조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이뤄진 것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선포적이지 설명적이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설명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이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심을 배웠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되심을 알고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났다면 우리에게 설명이 필요없다.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면 창조는 그에게 있어 너무도 쉬운 것이다. 사람이 숨쉬는 것 보다 더 쉬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면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설명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조의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의 고유 권한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만이 창조를 깨달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태초에란 말은 창조물의 시작을 말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창조를 이뤄내신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창조물의 시작이 있음은 창조의 종말이 있음을 말해주기도한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는 것이다.

창조는 또한 삼위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숨씨이다. 성부 하나님은 물론이며,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숨씨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나누는 일을 하셨다. (참조: 창세기 1 장)

첫째,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4 절) 그래서 낮과 밤을 구별하셨다. (5 절)

둘째, 물과 물을 나누셨다. (6 절) 그래서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구별하셨다. (7 절) 하늘의 궁창은 하늘이 되고 (8 절) 땅의 궁창은 모든 지면의 물이 한곳에 모이니 바다가 되었다. (9-10 절)

셋째,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나누셔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다. (14, 18 절) 그래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는 해가 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 달이 되었다. (16 절)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눈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때에 나누는 일을 통해 그의 일을 구별하여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빼놓을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의 거룩함은 구별 함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창조물들과 구별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을 구별하셨다.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내용들이며 창세기 1 장 부터 나오는 나누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로 부터 그의 섭리를 알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예수안에 있는 것과 예수밖에 있음을 우리는 구별한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나 신약의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을 다른 모든 사람들로 부터 구별하는 예식이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죄악된 세상과 융화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빛과 같이 빛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것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시키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셨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성경의 내용을 잘 읽어보라. “저녁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5 절) 이 내용이 여섯번 되풀이 된다. 과연 하루의 시작은 언제 부터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지내고 있다.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는 중요한 사실이다.

하루가 저녁부터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은 쉼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라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아침이 출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저녁에 집에와서 피곤함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패턴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은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쉼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을 하러 갈때 충분한 쉼을 통해 능률있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점으로 미뤄볼때 우리는 우리의 쉼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제 7 일에 안식일을 두셔서 쉼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쉼을 필요로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마태복음 2:27)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하루 속에도 안식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깊이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안식은 (1)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과 (2)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은 쉼에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다. (마태 11:28) 예수 안에서 쉼을 얻은 자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쉼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분명히 사람이 가장 나중에 창조 되었음을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문답 10 을 통해서 그 답을 얻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에 조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즘 어떤 진화론자들과 크리스천들의 사이에 소위 말하는 “신적 진화론” (Theistic Evolution)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진화론을 따르는 자들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자들로 진화론이 그 시작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적 도움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진화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크리스천들이 잘못 이해하여 성경을 접목시키는 것을 생각하여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

**첫째**, 사람은 진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게 손수 다듬고 빚어 만드시고 그의 호흡을 주셔서 그의 동반자로 만드셨다. 원숭이로 부터 진화되었다는 어떠한 비슷한 내용도 성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 섭리를 배웠고 하나님의 섭리는 진화론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숨씨이다.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